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왜 집사를 칭찬 하였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집사'로서 어느쪽을 섬기며 어떻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지 잠시 묵상하며, 오늘도 복음 안에서 기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18일 주일 복음말씀 [(눅)연중 제25주일]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13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2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3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4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5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6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7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0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11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13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9월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만남의 성경모임 - 9/10 (토)

조마오로 수녀님과 함께 루카복음을 나누는 만남의 성경모임이 지난 토요일 (9/10)에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방문한 반가운 옛 트락멤버 정소영 크리스티나 자매님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기쁜 나눔에 함께한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은 10/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사랑방 청소 - 9/10, 9/11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사랑방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도구와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고닦고 소독하며 꾸미고, 망가진 것을 고쳐가며 애써준 홍상미, 김정호, 김현경, 전진영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최 신부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머지 청소/단장은 다가오는 9/18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

지난 주일에 (예비자) 교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하모니 멤버 여럿도 함께하여 재미있게 기초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교리를 제대로 익히거나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 교중미사 살짝전에 오셔서 함께 기본 교리를 다지면 좋겠습니다.

일시: 매주 주일, 오전 9:30-10:30

장소: 교육관 106호실

기도

병환중이신 주임 신부님의 어머니 **김종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가족, 그리고 주임 신부님께 힘이 되도록 우리모두 기도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모니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형제님**께서 최근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와 루카 형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 드립니다.

또한, 위독하신 전진영 자매의 **할머니 한순상 로사리아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면 공지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다음 주일(9/18)부터 9월말까지 교리/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종이에 써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신부님께서 10월부터 매 주일 공지 시간에 가장 시급한 질문부터 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교리와 신앙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성당에 못 오시는 분들, 회장단에게 질문을 보내 주시면 대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Bodega Bay 여행 - 9/23금-9/24토

일상과 동네를 잠시 떠나 하모니 멤버간의 돈독한 친교를 다지는 1박2일 보데가베이 여행을 9/23- 9/2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참석 여부를 9/18일 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 9/30일 첫 모임

본당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르코 복음 성서모임**에 (창세기와 탈출기를 마친분들) 관심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9/30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에** 모임 예정입니다.

창세기와 탈출기 성서 모임반도 모집 중이니 신청해 주세요. 성서 모임으로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당 도서실

교육관 2층 도서실을 교중미사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서적 및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며 대여도 가능합니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한번 방문해 보세요~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tel:917-817-8908)

김정호 이나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